

解放직전  
총독부

# “治安권이양” 미끼 左右분열공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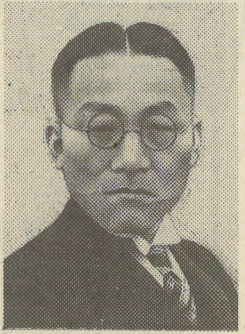
해방직전 朝鮮총독부의 치안권 이양문제에 대한 학계의 주장이 상  
당히 엇갈리고 있다. 다음은 작가 姜竣植씨가 소설 「風雲을 질날하  
기 위해 많은 자료를 접하면서 나름대로 판단한 제삼의 견해  
다.

## 작가 姜竣植씨 당시 증언 자료분석 새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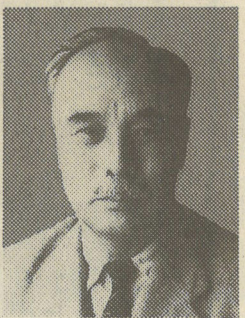
해방직전 총독부의 치 안권이양을 둘러싼 종래 의 통설은 총독부가 국 내우파의 영수적인 宋鎮禹에게 치안권을 위촉하 려고 모두 내차레에 걸쳐 교섭을 시도했었다. 그가 단호히 거절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呂運亨에게 모 돌아갔다고 하는 설 (金俊淵 李(의 증언) 이다.

그러나 그래와 와서 도이고 총독부측에서는 엔도나 경무국장 西光忠 雄, 또는 그 부하들 磯崎 廣行, 原田大六, 岡久雄 石井榮三, 森浩, 溝淵增巳 등)이며 軍中에서 神 崎久대좌등 두어명이 있 을뿐인데 필자는 이문제 에 대한 증언이 무엇이 남아있지 않을까하여 총 독부관련 문서를 가장 광 이 소장한 「友邦協會를 방문해 보았다. 그러나

## 宋鎮禹 呂運亨 양쪽 모두 손짓 혼란조장 日人 무사귀환 企圖



古下 宋鎮禹



夢陽 呂運亨

일부 소장자들이 당초 呂運亨계열이었던 李榮根 李東華 등의 증언이나 해방직시 證人 증언이었 던 엔도(遠藤柳作)의 기 사(海軍)에 의거한 「건 설부」의 자료에 의거한 우 파가 그말을하게 되어 언 파의 「날조설」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.

그러나 당시의 사실여 부를 증명할 수 있는 사 람이 宋鎮禹나 金俊淵정 일부 소장자들이 당초 이 협회가 수많은 시간 을 들여 제작해 놓은 각 종 대담집이나 회고록 또는 취재기록 테이프 등 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 한 자료를 보면 엔도의 관 련자로서 宋鎮禹의 말도 믿을 수 없었던 것 이었다. 엔도의 증언이 미온사 1948)고 되

그렇다면 證人 증언은 어찌서 이와 같은 사실 을 증명하도 부인하고 있는 것일까. 그러나 1956년 일본 「국제타임스」와의 회견 을 통해서 자신은 해방 도인데 6월중 총련연맹 의 인을 위해 宋鎮禹를 만나 일한 적이 있다고 해방 을 전후해서는 宋鎮禹를 만나거나 교섭한 일이 일절 없노라고 언명하고 있는 것이다. 그런데 이 회견내용을 음미해 보면 宋鎮禹를 만나거나 교섭 한 일이 없다고 한 주제 는 대체로 엔도 자기자 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사는 자기 이외의 존 재가 宋鎮禹를 만나거나

우파의 주장을 뒷받침 할 또다른 2차 자료로 는 해방직시를 사후 취재 한 미군기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「해방과 패를 같이 한 엔도...」와 「證人 증언」의 진위를 판별하기 했다. 처음 태평양 宋鎮禹가 그의 계획에 동조 하기를 거절하자 엔도는 다시 한번 呂運亨 쪽으 로 돌아갔다. 「G2」주한 미군사 1948)고 되

교섭한 일이 없다고까지 받드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. 이것이 다시 말 하자면 엔도 이외의 존 재, 가령 경무국장 레벌의 접촉까지를 포함하여 부 정하는 말이나 할 수도 있는데, 과연 宋鎮禹나 金俊淵도 자기들이 엔도 를 만났다고는 하지 않 았으며 자신들이 만났던 것이 치안권 이양문제를 담당한 실마리를 가령 證人 증언 보아와장이나 경 찰부장 또는 경무국장사 를 만났었다고 하는 증언하 고 있는 것이다.

해방직시 총독부 농장 과장의 고위직에 있던 崔 夏永의 증언에 따르면 치 안우파의 교섭과정에서 엔 도는 6월중, 엔도 증언이 신이던 특파원에서 진

행된 것이 아니고 실은 실부책임자들이 결단부 장이나 결단부의 네과장 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. 여기서 필자는 宋鎮禹 의 거부설과 엔도의 부 정설을 모두 수용할 수 있 는 제삼의 시각, 즉 특 부는 처음부터 宋鎮禹와 呂運亨 양파에 레벌을 달 리한 교섭을 벌였다고 보 는 시각을 갖게 된 것이 다.

또한 呂運亨의 조카 呂明九박사의 증언을 들 어보아도 총독부는 宋鎮禹와의 협상이 결렬되니 까 8월15일 당일이 되어 갑자기 呂運亨을 새로운 협상대상자로 택했던 것 이 아니라 宋鎮禹와 협 상을 벌여나가면서 한편 으로는 呂運亨과도 별도의 접촉을 벌였다고 보고 있던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.

만일 이것이 가려진 역사의 진상이라고 한다면 관련 證人 증언이 두 었다면의 치안권 이양 의 협상을 양파별로 벌 이나갔던 것일까. 필자의 결론은 아파도 이것이 총독부의 分割統 制의 연장선에서나 단 행되었으리라는 것이다. 이 경우 宋鎮禹와 呂運亨을 협안 대상자로 택 한 총독부의 기본개념은 역시 대중에 대한 그들 의 영향력과 사상정화의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 다.

가면 총독부나 이러한 민중분열적 목적을 통한 여러 가지의 진정이나 9 월8일까지 최소한 남선 제주 일본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 었던 것이다.